

# 인하대병원



OPEN

##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인하대병원 중국 청도시 국제진료센터 개소





2009. 03+04

# CONTENTS

Mar. Apr Vol. 74

05	월례조회사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07	Well-being Report	새롭게 주목받는 슬로우 푸드 죽
10	스페셜 컬럼	홍보(Public Relations)와 광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2	의학정보 1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14	의학정보 2	보다 편하고 정확한 유방암 검진장비, 유방감마스캔
16	의학정보 3	뇌졸중 치료실 운영
18	센터소개	질병 특이적 센터로 폐암센터를 개소하면서
20	건강책갈피	장기기증, 희망의 씨앗
22	기획인터뷰	달리는 사람들
25	글이 머무는 풍경	제 정성이 환자에게 전달되어 건강으로 이어지길 일상의 삶, 그 소중한 순간을 돌려드립니다.
28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체력·요소 중 가장 빠른 시간에 향상되는·유연성
30	개원의 탐방	변화진 소아청소년과 // 유원 정형외과
31	특목약물상담	피해야 할 음식과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다!
32	병원소식	인하대병원 발전기금소식 / 인하대병원소식
37	알립니다	자원봉사안내 / 피랑새소식 / 인사동정 / Global Inha 퀴즈 퀴즈 제48회 / 발전기금 / 무료공개 강좌

## 삶에 가장 소중한 때

오광수 | 시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힘들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도 있고  
울고 싶은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고  
궁핍할 때가 있으면 넉넉할 때도 있어 그렇게 삽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을 키우느라 많이 힘이 들었어도  
자식들이 다 커서 각자 제 몫을 하는 지금에는  
힘들었던 그때가 왠지 좋은 때 같고  
한창 일할 때에는 몇 달 폭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르는 이 없고 찾는 이 없는 날이 오면  
그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힘들 때와 궁핍할 때가 어려운 시절 같지만  
그래도 참고 삶을 더 사노라면  
그때의 힘듦과 눈물이 오늘의 편안함이고  
그때의 열심과 아낌이 오늘의 넉넉함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버리고 살 수 없고  
편안하고 넉넉하다고 다 혼자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네 사는 것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  
서로 소중한 시절을 가꾸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사랑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달의 친절직원으로 뽑히신 동17병동 홍미란 선생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온 인하가족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또한 환자와 동료직원들로부터 칭찬 받는 직원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달에 우리병원의 새 가족이 되신 교직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얼마 동안은 병원 생활에 익숙지 않아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입 교직원들이 병원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교직원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에 병원장에 취임한 이후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 사회적으로 어렵고, 지금도 계속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저 또한 일 년 동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 인하가족 여러분들께서 병원장을 믿고 따라주고 협조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하여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시는 대로 외래공간 재배치 및 특성화 센터 공사로 상당히 병원이 어수선합니다. 당노비만센터 신설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심장센터, 심장혈관센터, 소아 환경성 질환 연구소, 신경과, 호흡기내과, 12층에는 Stroke Unit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폐암센터 공사가 끝났습니다. 정석빌딩 5, 6층에는 임상시험센터를 상당히 넓게

공사를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또한 피부과 확장공사와 류머티즘 센터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일단의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며, 3층 공간에 국제진료센터, 국제협력팀 신설 계획이 남아 있지만 이제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JCI인증 준비로 더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팀 가동 및 국제진료센터 개소, CS강화, 병원의 홍보전략 수립 및 조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폐암센터와 류마티즘센터를 중점 사업으로 신설하고 역량을 강화해나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와 사업이 많았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현재 발간하고 있는 「인하 우리」 뉴스레터를 통하여 숙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인하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작금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적이나 전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는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잊는 순간, 필연적으로 도태하고 말 것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에 대해 정말 여러 날을 기도



하는 마음으로 고민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실수도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믿음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직원 여러분이 있어 큰 힘이 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은 현실에 안주하면 할수록 어려운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가능한 한 불편함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마주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포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온실 속 화초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온실 밖의 외부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때에 온실이라는 방어막이 없다면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현실에 안주하겠습니까?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열을 가하면 개구리가 노곤 노곤하게 아주 편안한 기분이 됩니다. 점점 뜨거워져서 냄비를 박차고 뛰어나오려고 할 때는 이미 힘을 잃어버려서 냄비를 뛰어날 수조차 없어집니다. 그런 현실은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현직 P&G의 CEO인 Lafley와 Harvard 경영대 교수인 Charan이 쓴 Game Change란 책에서 Innovating the way of innovation 혁신하는 방법 그것을 혁신하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이나 부서간 장벽이 혁신에 필요한 아이디어의 연계와 협력을 방해함으로써 혁신의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에이미라는 주인공이 갓 알에서 태어나는 야생오리를

키우게 됩니다. 야생오리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처음 보는 에이미를 엄마처럼 졸졸 따라 다니고, 에이미는 오리 새끼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핍니다. 하지만, 철새인 오리가 겨울철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다 자라도록 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에이미는 생각다 못해 조종술을 배웁니다. 에이미가 경비행기를 조종하여 하늘로 날자 엄마가 하늘로 나는 것을 보고 오리들이 날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보며 떠오르는 생각은 지도자가 꿈을 잃고 날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결코 꿈을 꾸지도, 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꿈은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며 변화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꿈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곳곳에 부패와 혼란과 무질서와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리자와 또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도 꿈을 가지고 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3년 전 잠실 롯데 공연장에서 'The Lion King'이라는 뮤지컬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사를 빗대어 표현한 극으로 하이에나와 결탁한 라이언 킹의 삼촌이 정권을 쥐고 혼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쿠나 마타타'라는 외침이 나옵니다. 이 외침이 요즘은 건배 구호로도 쓰이는데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있지만, 곧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4일

인하대병원 병원장 박 승 립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여럿이 끼니를 연명하는 구황식으로,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기 전의 이유식으로, 풍습에 따라 먹는 민속음식 등 어떤 이유에서든 '죽'은 여러모로 가치 있는 음식이었다. 곡식이 귀하어 쌀을 늘려 먹느라 죽을 쑤어야 했던 가난한 시절, 그러나 오늘날 그런 이유로 '죽'을 쑤 이유는 없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화두이고 영양 과잉이 각종 병으로 발전하는 요즘, 죽은 특유의 담백한 맛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영양만점의 웰빙 푸드로 새롭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 새롭게 주목받는 슬로우 푸드 죽



# 粥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노인들이나 환자, 단식 후 먹는 보호식, 몸이 허약하고 병을 치료하거나, 아기들의 이유식으로만 생각했던 죽이 슬로우 푸드의 대표적 웰빙 음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성장 발육 죽, 청소년을 위한 두뇌활력 죽,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식, 직장남성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죽, 노인을 위한 보양식 영양 죽 등 기능이 강화되고 수험생에게는 고급 건강음식으로, 웰빙 푸드의 선두주자로 죽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또, 또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은 방송국 드라마 협찬으로 스타마케팅의 '여주인공 금잔디'가 일하는 가게로 소개되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촬영 장소는 물론 죽에 대한 이미지변신까지 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환자들만의 음식이 아니라 한 끼 식사대용으로 또, 웰빙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 곡물로 먹는 최초의 음식 '죽'

죽은 곡식에 물을 6~7배 정도 붓고 오래 끓여 무르익게 만든 유동상태의 음식을 말한다. 곡물음식에서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농경시대에는 우선 수확한 곡물을 끓여 죽을 쑤고 여기에다 사냥한 육류와 산나물 등을 섞어 끓여 먹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죽은 가난한 시절, 구황식으로 여럿이 나눌 수 있었던 음식이었고 몸이 허한 사람에게는 보양음식으로 이용되었으며, 노인을 공경하는 집안에서는 아침 식사 전에 즐기는 초조반(初朝飯)이었다. 초조반상은 매우 이른 아침상으로 죽으로 일단 허기를 면하고 아침밥은 따로 들었던 것을 말한다. '죽'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아플 때 먹는 보양식이나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이다. 만들기도 간단하지 않고 웬지 먹어도 먹어도 배가 덜 차는듯하여 평소 때 주식으로 먹기엔 조금 허전한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죽의 역사를 보면 곡물로 먹는 음식 가운데 최초의 음식이다.

## 맛있는 죽이 몸에 이로운 이유

1943년 이용기가 지은 '조선무쌍요리제법'에 보면 잘 쑤어진 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죽이란 물만 보이거나 쌀만 보여서는 안 되니 반드시 물과 쌀이 서로 조화하여 부드럽고 기름지며 한결 같아야 죽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는 "차라리 사람이 죽을 기다릴 지라도 죽이 사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 은근한 불에 쌀알이 잘 어우러지게 쑤어지도록 느긋하게 기다려 제때에 바로 먹어야만 맛이 좋다는 말이다. 죽은 미리 쑤어 놓으면 쌀알이 퍼져 수분이 없고 퉁퉁 불고 또 쌀을 갈아서 쑤 죽은 풀기가 없이 삭아 버린다. "죽십리(粥十利)"라고 해서 죽을 먹으면 열 가지의 이로움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혈액을 좋게 하고 수명이 늘어나게 하며, 안락하게 하고, 통을 없애며, 말을 잘하고 말소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하고, 주림을 제하고 갈등을 없애 주는 등 10가지의 이로움이 있다. 또 죽의 재료와 도구는 오히려 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넘치거나 늘어불기 마련이다. 불의 세기도 잘 조절해야 하고 물은 적당해야 하며 사이사이에 잘 저어 주어야만 한다. 결국 맛있는 죽을 쑤자면 여간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죽을 쑤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밥보다 죽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 것이다. 죽은 다른 어느 음식보다도 만드는데 정성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옛날에는 나이 든 어른들에게 주로 많이 대접했기 때문에 좋은 쌀과 곡물을 선택하여 정성을 다해 쑤었다. 또 여기에 더하여 건강에 귀하고 좋은 여러 식품을 첨가하여 영양을 높였으니 먹는 이에게 이러한 마음 씀씀이가 전해지고도 남았을 것이다.

### 죽 먹고 시험을 죽 쑤었다? 다이어트 하려면 죽을 먹어라!

‘어떤 일을 망치거나 실패하다’라고 쓰이는 ‘죽쑤다’라는 말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깨어서 쓰는 계란만공이나 ‘죽’은 꺼리는 음식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죽이 웰빙 음식으로 부상하면서 이런 우려를 뒤로 하고 죽 쑤고(?) 싶어 하는 수험생이 많아 죽 전문점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한다.

시험을 죽 쑤지도 모른다는 의미와는 달리 죽은 간단히 먹을 수 있어 긴장된 수능 당일 밥 먹기가 부담스러워 하는 수험생에게 제격인데다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필을 하고 있다.

죽을 먹으면 배가 덜 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옛말이다. 많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죽’은 성인 남자가 먹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정도로 넉넉한 양과 영양을 제공하고 있다.

또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최강의 다이어트 음식이기도 하다. 먹자니 살로 갈까봐 걱정되고 굶자니 건강이 염려된다면 밥 대신 죽을 이용하고 반찬으로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것이다. 실제로 단식원에서 보식기간에 죽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이 때 훨씬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이어트와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성스런 죽부터 쑤어야 할 것이다.

요즘 시청률 40%를 넘나드는 인기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보듯이 이제 죽은 아픈 환자나 노인, 아기들에게 영양을 제공하는 보호식, 이유식의 목적도 있지만 치료식의 기능뿐 아니라 F4와 같이 잘 나가는 신세대 젊은 남자들도 즐기는 웰빙 스로우 푸드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한국음식을 대표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임에 틀림없다.

글·이정희 | 자유기고가 (자료협조: 본죽)

### 죽(粥)이면 다 같은 죽(粥)이다?!

#### 전복죽



전복죽은 죽의 일종으로 흰 쌀과 전복으로 만든 한국 요리이다. 전복은 한국 요리에서 고 품질의 재료로 여기며

한국의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 자주 언급된다. 전복죽은 맛뿐 아니라 아픈 환자나 노인에게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강화와 숙취 해소 및 체내 소화흡수율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에게도 탁월한 효능을 지닌 죽이다.

#### 팔죽

수종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없애 주며 술독을 풀어 주는 데 좋다. 비타민 B1이 많이 들

어있어 특히나 수험생들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갈슘, 인, 철 등이 많아 신장병, 각기병, 부종 등에 약효가 있고 빈혈치료나 숙취해소에도 좋다. 팔이 소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술로 약해진 위장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해독작용이 있다.

#### 호박죽



항암 작용이 뛰어난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한 ‘호박죽’은 임산부의 맞춤 죽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잣죽

한의학에서는 갈슘, 철분, 비타민 A, B1, B2 등이 함유된 잣죽에 대해 “기혈을 보하고 폐 기능을 도와 기침을 멈추고 내장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 새우죽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빈혈 예방에 좋으며 강장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까지 한다.

#### 호두죽

불면증이 있거나 건강증이 있을 때, 하초가 약해서 머리가 아플 때, 신장이나 수뇨관 결석이 있을 때,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조금씩 떨어질 때 먹으면 좋다.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성장기 어린이와 수험생에게 좋다.

광고는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신조, 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 하는 정보활동이고, 홍보(Public Relations)는 기업 단체 또는 관공서 등의 조직체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생각”이나 계획, 활동, 업적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입니다.

즉, 광고는 내가 나 스스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메시지이고 홍보는 자기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양방향 정보제공의 소통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광고는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홍보는 꼭 많은 비용이 따르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광고는 일시적으로 행하여지지만 홍보는 알게 모르게 꾸준히 하는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보자.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습니다. 그 장미의 빛깔과 꽃말, 꽃의 향기와 개화시기 등 그 꽃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홍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꽃을 직접 구매하게 하여 거실 화병에 꽃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그것은 광고라고 하겠습니다.

또 가장 흔한 예로 대형마트 등에서 시식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광고일까요, 홍보일까요? 이것은 작은 홍보에 해당하겠죠? ‘시식’이라는 홍보방법을 통해 맛에 대한 정보

를 주고 널리 알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향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향수가 있을 때 그것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접 그 향을 시연하게 하여 좋은 향수라는 이미지를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한다면 그 향수를 신문이나 잡지 혹은 TV와 같은 매체를 통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알리는 것을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그 향수를 많이 구매하였다고 하였을 때 광고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자와 후자 모두 ‘알린다는 것’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나를 알리는 것’이며, 후자는 ‘나를 사게 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홍보에 속해 있으며 홍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광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보면 드라마 속에 봄죽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그 죽집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심어주어 홍보효과를 얻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는 ‘이미지 광고’와 ‘제품 광고’로 크게 양분화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념이나 비전 등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미지 광고와 그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을 알리는 제품광고로 크게 양분화 할 수 있습니다.

# 홍보(Public Relations)와 광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글 · 김정희 실장 | 대외협력홍보실



또한 홍보(PR)는 정보제공의 바탕에 신뢰성을 두고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병원 브랜드를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병원 홍보와 기업 홍보의 차이점을 표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병원 홍보와 기업 홍보의 차이점>

구분	병원	기업
서비스 효용	의료상품의 효용성 불확실	상품의 효용성 확실
경영목적	윤리성 및 공익성 강조	이윤추구
광 고	광고 제한	광고 자유
서비스 선택권	일방적	쌍방향

우리 인하대병원도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홍보는 병원의 눈이자 귀이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알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홍보,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병원의 이미지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론을 통한 홍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단기간 반짝하는 홍보에 그칠 뿐입니다. 장기간 고객의 머리와 가슴에 남는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병원 사이의 보다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홍보”라는 업무가 특정부서 직원들만의 것이 아니며 전 직원들의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행동 하나하나가 병원에 큰 이득이나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원의 잘못된 사소한 판단, 행동들이 병원의 막대한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내 직종 간, 부서 간의 원활한 소통도 포함됩니다.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부서 업무와 타 직종 업무의 특성 및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일 또한 홍보마인드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업무이지만 병원에 대한 홍보마인드를 갖추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인하대병원 소식”을 올리는 것도 온라인 홍보에 큰 힘이 되듯 말입니다. 또 병원은 일반 기업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 분쟁, 민원 등 위기사항(risk)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2008년 대외협력홍보실은 우리만의 홍보 SYSTEM을 찾아 시범운영 했던 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대외협력홍보실이라는 이름 아래 의료법으로 제한받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료봉사, 마케팅, 대외협력을 접목한 홍보기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 2009년의 우리 인하대병원 홍보 슬로건은 INHA BRAND를 알리는 한 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은 고객에게 기억에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홍보의 시작입니다. 또 홍보의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입소문’일 것입니다. 과장된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우리 병원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홍보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홍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항원)이 코 점막에 노출된 후 자극 부위로 비반세포, 호산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IgE 항체를 매개로 하는 염증세포가 몰려들어 이들이 분비하는 다양한 매개물질에 의하여 염증반응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장태영 교수** | 이비인후과  
• 전문분야 :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 진료시간 : 월(오후), 수·목(오전)  
• 문의 : 이비인후과 ☎032-890-2420

알레르기성 비염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 소인이 모두 작용하는 대표적인 다인자성 질환이다. 전체 알레르기성 비염의 80%에서 20세 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부모 중 한 쪽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50% 정도이며 양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확률은 약 75%로 증가한다. 한편,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 항원을 알레르겐이라고 한다.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 혹은 비듬, 바퀴벌레 따위의 곤충 부스레기 등과 같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것들이 대표적이지만, 음식물, 음식물 첨가제, 약물 등에 의해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항원에 대하여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항원에 대하여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의 네 가지 주요 증상을 특징으로 하며, 특징적인 증상 외에도 눈 주위 가

려움, 두통,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 중 코막힘은 만성적인 코 점막 부종(그림 1)으로 생기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주 증상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다. 합병증으로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흔히들 감기나 유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비염끼가 있네요, 혹은 알레르기네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으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징적인 증상과 원인 물질에 따른 항체를 증명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에는 증상, 가족력, 주거환경과 과거 치료력에 대한 자세한 확인 및 알레르기 여부와 원인 항원에 확인을 위하여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민감도가 높은 피부단자 검사(그림 2)로 비교적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진단적 가치가 높다. 최근에는 면역혈청검사가 더욱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약제 사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행하기 간편하며, 진단적 유용성이 크게 향상되어 점차 피부 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항원을 직접 콧



속에 투여하는 비유발반응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만성 질환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완치보다는 증상의 조절을 주 목표로 한다. 치료법은 크게 환경요법으로 항원의 제거와 회피, 식염수 세척,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점막 수축제 등 약물요법, 면역요법, 수술요법이 있다(그림 3).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증상이 조절 되더라도 재발과 합병증을 막기 위해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한다. 특히 약물 치료를 위해서 흡입 약물 혹은 비강내 국소 투여 약물의 정확한 투약이 필수적이다. 약물치료나 환경요법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 피부반응검사나 혈청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한 후 필요한 경우 면역치료를 시행한다.

면역요법은 면역항체를 만들어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노출되어도 알레르기 증상이 경감하거나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인항원을 지속적으로 피하 주사하거나 혀 밑에 흡수되는 방법으로 일부 적응이 되는 환자에서 완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밝혀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물질을 3년 이상 소량씩 주기적으로 주사하는 피하주사법이 가장 보편화된 면역요법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더 간편하고, 안전하면서, 효과는 뛰어난 혀 밑에 흡수시키는 설하면역요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비강내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

는 경우에 비중적 교정술이나 레이저, 혹은 고주파 하비갑개절제술 같은 수술요법이 증세의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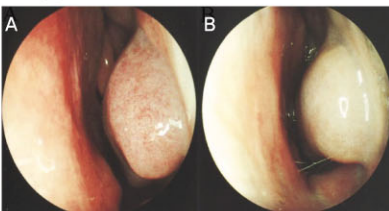
알레르기성 비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악화를 예방하려면 우선 알레르기성 비염이 어떤 병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환경관리를 통해 원인물질과 악화요인을 피해야 한다.

일반적인 예방법으로는 먼지, 온도의 변화, 담배연기나 매연, 화장품,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 꽃가루가 많은 계절에는 창문을 닫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애완동물이 원인인 환자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다.

집 먼지 진드기의 경우 침대, 이불, 베개, 담요 등 먼지가 쉽게 끼거나 방출되는 물건은 지퍼가 달린 커버를 사용하고, 커버는 삶도록 한다. 실내 온도는 18-20℃, 실내 습도는 40-50%로 유지하여 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하며, 특수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실내청소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진드기 살충제 등이 개발되어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한 가지 장기에 나타나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전신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효율적인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 그림 1



A : 정상인 코 점막 B :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의 창백하고 부은 코 점막

▼ 그림 2



피부 단자 검사

▼ 그림 3



# 치밀유방이 많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알맞아 보다 편하고 정확한 유방암 검진장비, 유방감마스캔

21세기에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암의 빈도가 변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은 많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암으로 우리나라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었다



**조영업 교수** | 외과(여성암센터)  
• 전문분야 : 유방, 내분비외과  
• 진료시간 : 월·수·목(오전)  
• 문의 : 여성암센터 ☎032-890-2560

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념적인 생각과 달리 유방암은 완치율(5년생존률)이 우리나라에서 85%에 이르는 비교적 순한 암이다. 그러나 암을 늦게 발견하여서 종괴가 커지기 전이 있으면 생존률이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조기발견의 중요함은 강조에 강조를 더해도 모자란다. 국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암에 대한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지난 1월 말 인하대병원에는 국내대학병원 중 최초로 유방감마스캔이라는 최신의 유방암진단기기를 도입하여 환자의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동위원소인 테크니슘을 이용하여 유방암을 찾아내는 진단장비로 기존의 진단장비인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장비이다. 특히 한국여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치밀유방(유방조직이 치밀하게 분포하여 있

는 유방)은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유방촬영술은 유방을 압박하면서 촬영하게 되어 환자에게 불편감을 초래하는 것은 이미 경험해 본 여성들은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유방감마스캔은 치밀유방이 많은 우리나라 여성에 대하여 적용하기 알맞으며 촬영 시 불편감을 없앤 우수한 장비이다.

어떤 진단기기가 해당질환을 찾아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하게 되는데, 유방병변의 민감도는 일반적인 유방촬영술에서는 55%, 디지털 유방촬영술에서도 70%에 불과하다. 치밀유방인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과연 유방암 정기검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본 장비는 Technetium 99m을 주입하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민감도가

88.6%로 상승하였고 특이도는 85.7%이었다. 암세포가 있을 경우 3mm 크기의 종양도 발견하는 매우 우수한 장비이다.

유방감마스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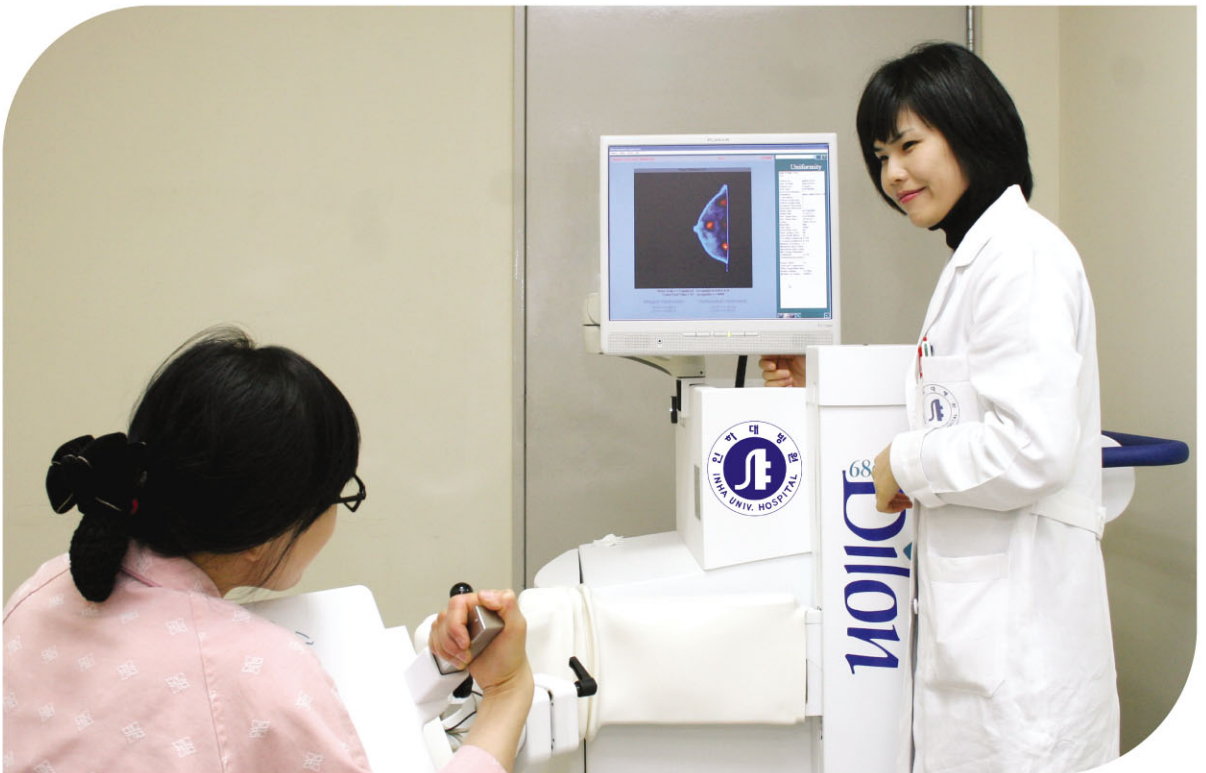
- 치밀유방
- 유방암 발생 고위험군의 감시
- BI-RADS 3(유방암 추적고려 상태)로 알려진 유방촬영 결과
- 유방암 수술 후 또는 치료 후 유방의 변화 관찰
- 유방의 다발성 병변 또는 미세석화 군집의 생검술 전 병변 선택
- 유방촬영술과 초음파로 발견되지 않는 유방의 병변
- 유방에 대한 자기공명촬영술(MRI)이 필요하지만 적용할 수 없는 환자가 바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

는 좋은 대상군이다.

이와 같은 적응증과 더불어 유방암 환자에 대한 수술 전 항암요법 시행 후 병변의 관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촬영 전 주의해야 한다.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는 태아 또는 영아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촬영을 금하며, 생리기간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임기 여성은 생리 후 부터 배란기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적절한 촬영시기이다(생리 끝난 후 3~7일이 최적기).

본 진단장비가 한국여성에서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좋은 치료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많은 여성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 뇌졸중 환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의 핵심 시설 뇌졸중 치료실 운영

본원은 3월부터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뇌졸중 치료실>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뇌졸중 치료실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전문적이고도 집중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다양한 의료전문인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뇌졸중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정호 교수 | 신경과

• 전문분야 : 뇌혈관질환, 뇌졸중

• 진료시간 : 화(종일), 금(오전)

• 문의 : 뇌졸중치료실 ☎032-890-3241

뇌졸중 치료실은 일반 환자와는 달리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집중 치료하기 위한 곳이다. 환자는 이곳에서 약 2, 3일 동안 입원하여 집중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된다. 의료진은 24시간 상주하여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뇌졸중 치료실에는 24시간 심전도와 부정맥 자동 감지장치 등의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어, 심전도는 물론 15분마다 자동으로 혈압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뇌MRI와 CT, 뇌혈류 및 심장 초음파 등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 뇌경색, 뇌출혈을 진단하고 뇌혈관의 상태를 평가하며 그 원인을 찾는다.

외국에서 이러한 뇌졸중 치료실은 이미 뇌졸중 치료의 핵심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의 분석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치료실 개설 후 사망률이 18% 감소, 장애율이 29%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뇌졸중이 단일 질환으로 첫 번째 사망 원인인 만큼 국가적으로 뇌졸중 치료실을 필수 요소로 하는 뇌졸중 센터 지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뇌졸중 학회의 진료 지침에서도 뇌졸중 치료실의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뇌졸중은 그 특성상 처음 몇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이후 2, 3일 동안이 치료의 최대 고비가 되므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질환이다. 따라서 이러한 뇌



졸중 치료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무엇보다도 환자가 급성기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와야 한다. 이미 발생 후 며칠이 지나버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도 그 회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하대병원 뇌졸중 치료실에서는 뇌졸중 교실 등을 통해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 응급 대처 요령 및 예방법 등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위해 지역 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응급 구조대와의 연계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향후 인천 지역에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뇌졸중 치료실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인하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것을 권장한다.



환자 중심, 연구 중심

## 질병 특이적 센터로 폐암센터를 개소하면서

폐암은 우리나라 암 환자 중 사망 원인 1위 질환입니다. 지금이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었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던 때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흡연이 폐암 발병에 중요한 원인이고 담배 판매량과 폐암 발생율은 20~30년 차이를 두고 동일한 추세의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이 50% 이하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1980년대 80%대 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폐암 발생율의 상승 추세는 꺼지지 않는 불길과 같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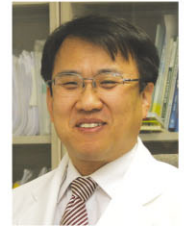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형병원 암센터에 폐암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질병 특이적 센터로 폐암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인하대병원이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암사망 원인질환 1위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폐암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가공할 만한 위험과 폐암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가장 커서 2002년 추산 1조 5천억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 질병 특이적 폐암센터라는 자축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늦었다는 자책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OO 센터', '△△△ 센터'... 요즘 우리나라 병원들을 보면 다양하고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센터라는 것은 '역량 및 시스템을 집중하여 진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무엇을 집중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인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나서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보내고 폐암 투병이라는 인생의 최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폐암 환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폐암에 대한 진단,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즉, 폐암환자의 생존 기간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암사망 1위의 오명에서 폐암을 탈출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환자, 가족, 폐암센터에 근무하게 될 의사, 간호사, 직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나가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폐암센터는 두 가지 핵심 모토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환자 중심', '연구 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자 진료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내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MDCT와 사이버나이프와 같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폐암 진단, 방사선 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센터를 개소하면서 진단, 치료용 최신 기관지내시경 장비(EBUS, AFI/NBI 시스템, Cryotherapy, Rigid Bronchoscope)를 추가로 도입하였고, 아울러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영입하게 됨에 따라 폐암 진단, 치료 수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한 장비를 이용하



류정선 교수 | 호흡기내과

- 전문분야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 진료시간 : 월·금(오전), 화·목(오후)
- 문의 : 호흡기내과 ☎032-890-2219

● **자가형광관찰장치(AFI)**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형광을 검출하여 점막내 표면구조나 혈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화상



AFI 화상

● **협대역 영상 내시경(NBI)**

특정 파장의 빛만을 선택하여 영상을 얻어 점막표면의 미세구조 및 표면 혈관상을 관찰한다.



일반화상



NBI 화상

● **EBUS-TBNA**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를 보면서 기관이나 기관지주위의 병변에 대한 세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모식도와 실제 검사 영상 예



★ **최첨단 기관지내시경 장비의 장점**

- 국소마취와 진정상태에서 외래에서도 검사 가능
- 고위험군에서 폐암 조기발견 가능성 높임
- 기관지내시경상 보이지 않는 폐암 초기 병변 발견 가능
- 정확한 폐암 병기결정 가능
- 폐암 이외 종격동 질환 등의 진단에도 유용

여 One Stop 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자가 처음 진단받고자 입원하여 조직학적 진단을 하고 치료를 계획하고 시작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병원 폐암센터의 진료 및 연구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 최고 암센터와 정기적으로 화상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환자 및 가족들이 외래에서는 물론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궁금하신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폐암센터에서는 진료 표준화를 시행할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수들이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가 참여하기 용이한 시간을 정하여, '폐암에 대한 세부 사항 교육'과 '폐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폐암센터의 코디네이터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진단 검사, 항암화학치료 등 진료적 측면과 진료외적 내용까지 아우르는 궁금한 점들을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환자 및 가족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폐암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구 중심의 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폐암의 진단, 치료 패러다임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시행하여, 폐암환자의 생존기간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연구 중심 폐암센터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울러 환자와 의사가 함께 폐암 퇴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델로 발전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100% 환자가 연구 프로토콜에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미국 최초 암센터인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와 공조하여 폐암 조기발견 사업을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폐암은 일단 진행되어 발견되면 현재 치료방법으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조기발견 연구의 성공적 수행은 폐암 환자에게 많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환자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폐암 맞춤치료 적합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암에서 맞춤치료 시대를 여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미국 Mayo Clinic과 폐암의 인종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탄생하는 폐암센터의 앞날에 희망의 빛이 함께하길 간구하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자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잘 포장된 하드웨어가 아니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오직 폐암 환자를 위하여, 폐암 연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호손'의 소설 '큰바위 얼굴'에 나오는 '어네스트'와 같이 멀지않은 날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중심에 우뚝 서있는 인하대병원 폐암센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장기기증, 희망의 씨앗 조건 없이 나누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



정리 · 변은경 간호사 | 장기이식코디네이터

한 달 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온 국민이 추기경님의 선종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애도를 받는 이유는 살아서도 사랑과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셨으며,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자신의 눈까지도 다른 이에게 기증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이에 추기경님께서 선종한 2월 16일 장기기증의 날로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식대기자와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조직, 조혈모세포 기증은 다른 이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 장기이식대기자 현황(2009.1년 현재, 단위:명)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골수	합계
7,722	2,666	319	136	31	3,635	3,796	18,305

### 장기기증희망등록 현황(2009.1년 현재, 단위:명)

장기기증희망등록	골수기증희망등록	합계
11,087	1,309	12,396

### 2008년 뇌사자 장기이식 현황

뇌사자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합계
256	481	233	22	84	14	306	1140

### 사망자의 각막이식 현황(2008년 현황, 단위:명)

사후기증자	이식 받은자
88	174

장기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기증과 사후기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종 뇌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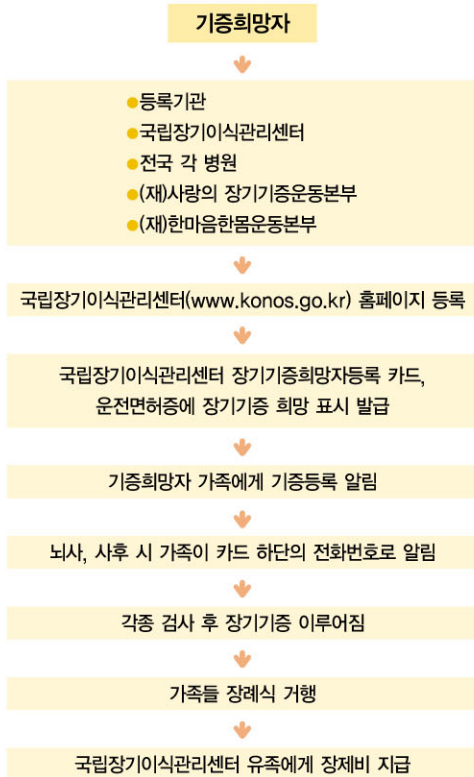
뇌사상태에서는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각막 등을 기증하실 수 있으며, 돌아가신 후에는 각막 및 인체 조직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상태의 비교

구 분	뇌사상태	식물인간 상태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무의식 상태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억, 사고 등 대뇌 장애
운동능력	움직임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경과내용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함	수개월 수년 생존 혹은 회복 가능성이 있음
기 타	장기기증 대상이 됨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 없음

기증 신청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go.kr](http://www.konos.go.kr))의 홈페이지, 장기이식 등록기관(전국 각 병원,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장기, 조직, 조혈모세포 기증 관련 문의  
인하대병원 이식코디네이터 032)890-3060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 조혈모세포(골수)란

우리가 흔히, 골수라고 하는 것은 골수에 들어있는 혈액성분(조혈모세포)을 말합니다.

조혈모세포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조혈조직이며, 이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빈혈 등 여러 가지 난치성 혈액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실제기증은 만55세 미만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은 개인의 경우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서울)', 또는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으로 먼저 전화 상담한 후 방문 신청하시고, 단체의 경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 사전에 연락하며 출장계획 수립 후 기증신청 가능합니다.(서울 및 수도권:10명 이상, 지방:20명 이상)

'조혈모세포기증희망신청서'를 작성 후, HLA type(조직형) 검사용 혈액샘플 4ml(손가락 크기) 채혈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시 기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혜자와 의료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며, 조혈모세포 채취 시 골반 채취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통증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주로 헌혈처럼 말초혈액을 통해 채취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 기증 후 2~3주 이내에 조혈모세포는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 인체조직기증이란

자신의 인체조직을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숭고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한 분의 기증이 수십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뇌사기증 혹은 사후 각막 기증 후 뼈, 연골, 근막, 건, 인대,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을 함께 기증할 수 있습니다. 조직기증은 사망 후 보호자의 조직기증 동의로 가능합니다. 기증 후 시신은 복원, 입관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유족에게 인도하며, 유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 시신 기증

장기기증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일괄 통합 등록되나, 시신기증은 각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등록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해부학 교실 ☎ 032-890-0917)

각자 달리는 이유는 다르지만 한곳을 향해 가야하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동료애를 느끼는 마라톤!  
인하대병원에도 달리면 행복이 보인다고 말하는 그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마라톤의 매력으로 빠져보자.

정리 · 이지현 | 대외협력홍보실

마라톤 동호회

# 달리는 사. 람. 들.

## 많은 운동 중에서 <달리기>를 선택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이두익** : 편리하고 시간 마련이 쉬운 걷기운동은 등산과 골프를 위한 기초체력운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걷는데 제 걸음이 너무 빨라 주위동료는 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달리기로 전환되었지요.

**이승호** : 20대 후반부터 가끔 학교운동장을 뛰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1년 직장동료와 10Km를 1시간 이내에 달리면 이기는 술내기를 계기로 바로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황현심** : 20대 초반, 체력의 연약함을 느낀 이후, 주말이면 학교운동장에 가서 달리곤 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육체를 위해 여러 운동을 했지만 1년 이상 지나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비해 달리는 항상 하고 싶은 운동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적·공간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채희영** : 운동에 필요성을 느끼면서 야구, 축구 등 여러 종목을 해보았으나 단체운동은 인원 수 및 운동장 조건이 여의치 않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달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달리기>를 시작한 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두익** : 개인적으로는 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감을 성취할 수 있어 마음의 평정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고, 친구들과는 건전한 모임이 되고, 처와 동행할 때는 부부대화 시간을 돈독히 나눌 수 있어 중년 이후 부부생활에 적합한 운동으로 생각됩니다.

**이승호** : 일단 체력이 좋아집니다. 좋은 예가 친구들이나 주변사람들과 등산을 가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산의 정상을 오르려면 항상 깔딱 고개가 있잖아요. 바로 이 곳에서 다른 분들과 차별화가 생깁니다. 마라토너들은 풀코스 35Km 지점에서의 인내(최대 맥박의 80~90%)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극복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약간의 힘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라톤 풀코스'도 뛰었는데 이 정도도 못할까 하는 자신감도

생기지요. 그리고 마라토너들은 감기가 없어요. 감기를 걸리더라도 반나절 정도 콧물이나 기침을 하는 정도입니다.

마라톤을 시작할 때 가족들이 처음엔 걱정을 했었죠. 최근에는 무사완주 기원을 해줍니다. 완주 후에 제일 먼저 집에 전화를 걸어 걱정을 덜어주고요, 아이들도 아빠가 마라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채희영 :** 처음 풀코스를 뛰기 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을 가졌으나 난 해냈고 그 후로 모든 일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건강과 지구력 향상, 정신적으로는 포기를 모르는 강인한 도전정신. 고혈압, 당뇨, 비만, 변비, 치질, 우울증 치료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 마라톤 경기 또는 훈련 중에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두익 :** 8년 전인가? 동아 마라톤 풀코스에서, 항상 그렇지만 30KM부터 몸이 힘들어 이날 특히 정신적인 자책이 심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하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 완주 후 허리통증이 심해 오래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FULL은 마감하고 간혹 half, 주로 10km로 등록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달리고, 10km는 전날 과음을 했더라고 별 무리 없이 편안히 즐길 수 있고 달리기 후 After 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승호 :** 2003년도 4월 부활절 수원에서 있었던 경기마라톤 풀코스에서 출발점인 수원종합경기장에서는 날씨가 좋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고, 삼거리에 도착했는데 교통안내인이 비를 피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 선간판으로 방향표시가 잘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자가 안내를 했던 때라, 앞 뒤에 주차도 없고 해서 황당했지요. 다행히 교통 통제 중인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하(?) 완주를 하였습니다.

**황현심 :** 경기 때마다 달리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의 달리기 이야기와 경험을 듣고 격려하며 달렸던 기억은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각각 달리는 이유는 다르지만 우린 한곳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동료애를 느끼게 되더군요.

**채희영 :** 수 많은 대회를 참가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국 곳곳에 명소와 경치를 즐길 수 있어 강호동의 1박2일 부럽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서울H마라톤에서는 당시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과 인사하며 기념사진도 찍고 함께 달리기도 했습니다.

### 마라톤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SECOND WIND”(일명 런하이)를 경험한 후 더욱 마라톤에 빠지셨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이두익 :** 심한“하이”는 경험 못했고 습관성도 없었으나 몸이 피곤하여 찌뿌둥해도 집에서 박차고 나가서 뛰면 3~4km에서 몸이 편해짐을 느끼고, 또한 오랜 기간 뛰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한 것이 달리기에 따른 “하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호 :** 개인마다 런하이를 느낄 수 있는 주행거리의 차이가 있는데, 달리기 시작하여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맥박과 호흡이 일정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런하이” 가 찾아오는데 저의 경우는 5Km 정도에서 20분 정도 편안함(런하이)을 느끼지요. 모든게 자동적으로 힘이 안 들고 기분이 묘합니다. 그리고 연습이 많을 시에는 35km 근처에서 또 느낍니다. 진짜 마라톤의 묘미는 후자에 있습니다.

**황현심 :** 몸이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지다가 몸이 새처럼 가볍고 마치 구름 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땐 지구 끝까지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느낌 때문에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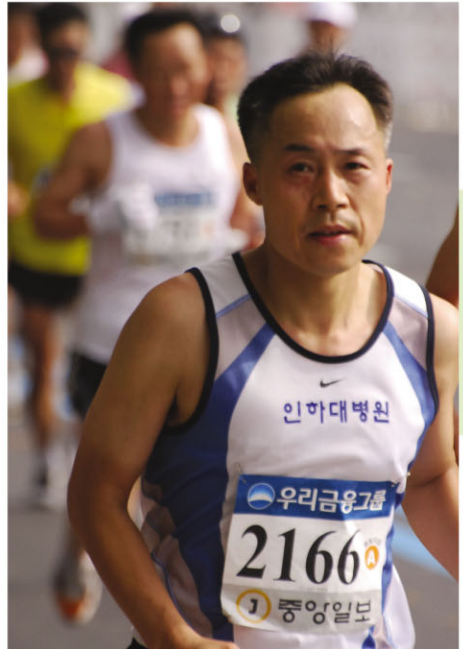
### ▼이두익 | 의료원장

경력 12년/full 4시간 30분, half 2시간, 10Km 51분



### ▼이승호 | 진단검사의학과

2001년 3월 영종도신공항 인천마라톤부터 참가/full 약 40회, 65km 1회/최고기록 Full 3시간32분, 2008년 강화도 햄울트라마라톤 65K 부문5등



▼황현심 | 진단검사의학과

2002년 인천마라톤 2회부터 참가/full course 10회 완주/최고기록 2007년 중앙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17분



▼채희영 | 진단검사의학과

마라톤 동호회 총무/2001년부터 시작/full 25회 이상/full 3시간 36분 half 1시간35분



**채희영** : 저는 달리기 30분 후부터 느끼기 시작하며 하늘을 나는 듯 공중에 떠있는 기분이 드는데, 꼭 달리기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마약 같은 것이랄까

**달릴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이두익** : 초창기에는 뛰는 간격마다 시간계산에 빠졌는데, 이후 대부분 “감사”할 부분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주로 묵주기도)드리며 뛩니다.

**이승호** : 어떤 분들은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주루상에서 MP3를 듣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루상에서는 자전거, 인라인 등 다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험신호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하는데 사용하고요.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실력이 비슷한 분들과 공동의 주제는 물론 마라톤으로 답소를 하면서 달리면, 덜 지루하고 힘도 덜 듭니다.

**황현심** : 처음에는 음악과 영어를 주로 들으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을 달리다 보면 나 자신과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너무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기자신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달리는 동안 우리의 인생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제공되고, 건강한 육체와 고인이 해결된 마음도 얻게 됩니다.

**처음 달리기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두익** : 시작은 가볍게, 점진적으로 달리기 양을 증가시키며, 특히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판단하여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달리기 전 준비운동, 스트레칭은 빠뜨려서는 안되고 끝난 후 정리운동도 필수입니다. 피로하더라도 집을 박차고 나와 운동량을 줄이더라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승호** : 꼭 해야만 하는 비만 등 성인병 치료목적이라도 혼자 규칙적으로 연습하기가 어렵지요. 처음에는 열심히 운동 하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나태해지면 그 때부터 요령을 짜는데, 이럴 때 동우회가 필요합니다. 동우회에서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어 운동을 합니다. 달리면서 직장내 이야기가 힘든 공통관심을 나누다 보면 금방 친해지게 됩니다.

**황현심** : 우선 무슨 운동이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권하고 싶습니다. 운동도 평생 함께 갈 친구가 되어 줍니다. 달리기는 이렇게 평생을 같이 달려줄 저의 운동친구죠. 달리기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같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어 좋은 운동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조언해주고 대회기 끝나고 뒤편이 때 대회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먹는 식사 또한 꿀 맛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사람들은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 들것입니다.

**<달리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두익** : 달리기는 육체, 정신적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운동

**이승호** :中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빨리 뛰면 오버페이스가 되어 경기를 망치고, 너무 늦게 뛰면 평소보다 기록이 저조하겠지요.

**황현심** : 땀의 결과물이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성과를 주고, 남이 해줄 수 없고 나의 땀방울이 모여서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채희영** : 마라톤은 인생입니다. 42.195Km를 완주 하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즐거움이 반복되는 긴 여정의 우리에게 인생입니다. 달리면 행복합니다. ~~

**채희영 선생님, 동호회 총무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동호회 가입 시 대회참가비를 제외한 연습 및 회식은 회원에 대해서 동호회에서 일체 부담합니다. 운동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마라톤, 우리 함께 달려요



진료재료 소포장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의사선생님들께서 진료하시기 편안하며 환자들에게도 보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정성에 환자들이 하루속히 병을 고쳐 건강하고  
평안한 가정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 · 이순영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의 기쁨이란

## 제 정성이 환자에게 전달되어 건강으로 이어지길



++ 저는 인하대병원 중앙공급실에서 매주 수, 목,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사명감을 갖고 진료재료 소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 면봉, 설입자를 포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포장지는 크고, 면봉, 설입자는 길어서 정사각형 포장지를 반으로 접어 넣은 후 포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자상하시고 인정이 많은 권은경 과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면봉을 포장하다가 “과장님 포장지가 아까워요” 했더니 과장님도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르면 포장지 절약도 되고 포장하기에 힘도 덜 들지 않겠어요” 하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그 이후 현재까지 면봉, 설입자, 포장지는 삼각형으로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경제적으로 절약하고 아끼며 병원에 도움이 되는 봉사자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진료재료 소포장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의사선생님들께서 진료하시기 편안하며 환자들에게도 보다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정성에 환자들이 하루속히 병을 고쳐 건강하고 평안한 가정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인하대병원은 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사선생님들과 여러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시며 자상하시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봉사자님의 원공주 선생님, 신소영 선생님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항상 따스하고, 친절하게 아껴주시며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은 더욱 즐겁게 보람을 느끼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하시고 아름다운 선생님들께서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펴 주며 진료 하시니 빠른 시일에 병을 치료할 수 있겠지요?

환자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인하대병원의 의사선생님들과 여러 직원들의 따스한 사랑과 송고하고 고귀한 마음씨는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인천광역시는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를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어 제 인생에 새로운 보람을 안겨준 인하대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 남자가 사는 법 일상의 삶, 그 소중한 순간을 돌려드립니다.



글 · 박상수 간호사 | 집중치료실

회복의 기쁨과 임종의 슬픔이 교차하는 이곳 집중치료실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어느새 1년 하고도 2개월이 지났다.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집중치료실 근무를 지원할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을 뒤로 하고 달려온 시간이 이제 뿌듯함으로 다가온다. 새롭게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한동안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던 습관이 배어 적응의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이곳 집중치료실 근무가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다.

병원에서의 간호사, 그 중에서도 집중치료실 남자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종종 어색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이곳 MICU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처음 내과계 집중치료실로 발령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복장 때문인지 대부분 새로 온 인턴선생님으로 오해를 하셨다. CPR상황에서도 종종 왜 ambu bagging(고무주머니를 짜주어 산소를 공급해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느냐며 오해를 받기도 했다. 보호자 분들도 때때로 전공의 선생님이오 오해를 했는데 담당간호사라고 말씀드리면 좀 더 편안해 하시며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다. 학생 시절 실습할 때는 남자 간호학생이라고 환자나 보호자 분들께서 신기해하시고 낯설어 하셨는데, 지금은 남자 간호사가 많아지고 주변에서도 종종 보셔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대해주신다.

지난 1년여 집중치료실 근무를 하면서 절실하게 배우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삶의 소중함'이다. 많은 환자분들이 열심히 생활하다가 갑자기 또는 서서히 얻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때로 그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집중치료실까지 오신다. 집중치료실에서의 치료 기간 동안 환자나 보호자 모두 참 많이 힘들어하신다. 급격한 악화로 수많은 약물을 달고 인공호흡기와 응급혈액투석, 때론 응급수술까지 환자는 고통으로, 그 가족 분들은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더욱 힘들어하신다. 하루에 두 차례 있는 짧은 면회시간이 환자와 가족 분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유일한 시간인데, 담당 간호사로서 나 역시 안타까움에 맘이 아프다. 그 순간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일상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것이다.

집중치료실 근무를 통해 그 힘든 현실도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의식이 명확치 않거나 인공기도관을 갖고 있어 의사소통이 부정확한 분들의 작은 움직임이 어떤 불편감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일 수 있음을 배웠고 그것을 찾아 해결해 드리는 것이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처치와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환자분들이 일반병동에 올라가는 날,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작은 웃음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같다. '일상의 삶'을 되찾아 드리려고 주치의와 간호사를 비롯해 전 의료진이 밤낮으로 맘 흘리며 뛰어다니는 결과이기에 그 작은 웃음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집중치료실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로서 또 한 성인으로서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또한 일이 잘 안된다고 불평하고 스스로 자책했는데, 집중치료실 근무를 통해 그 힘든 현실도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의식이 명확치 않거나 인공기도관을 갖고 있어 의사소통이 부정확한 분들의 작은 움직임이 어떤 불편감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일 수 있음을 배웠고 그것을 찾아 해결해 드리는 것이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질병악화라는 위기에 처한 환자와 그 가족 분들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도 함께 배우고 느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집중치료실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다. 나 또한 언젠가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 나의 가족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싸워 이길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소중함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집중치료실 근무를 하면서 좋은 점은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갖춘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것이다. 집중치료실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조금씩 배려하면서 힘을 모아 적절한 처치와 대처로 위급상황을 넘기고 결국에 환자가 호전될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든든함이 느껴진다. 아직 집중치료실 간호사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동료들이 있기에 힘이 난다. 환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 최선의 의료 및 간호 지식, 숙련된 처치 및 간호기술 등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동료들이 있기에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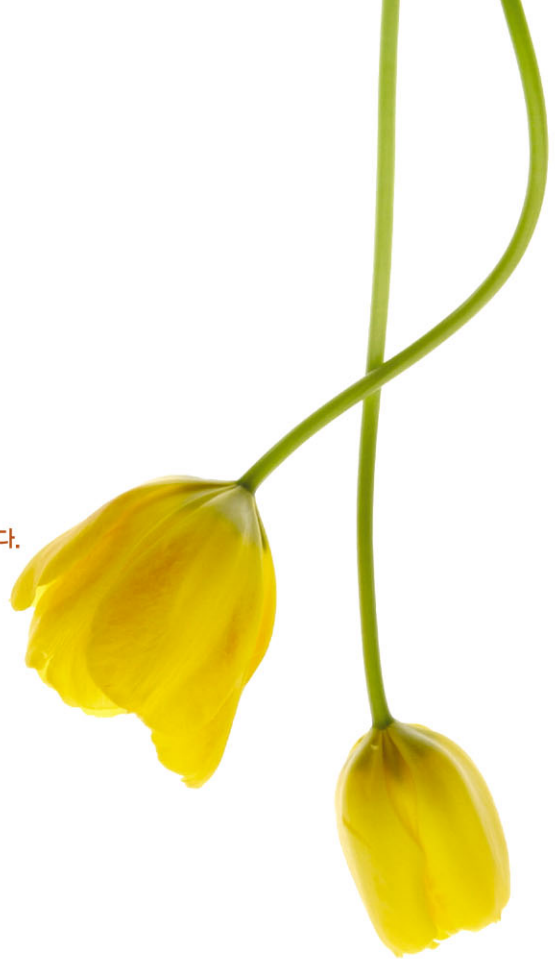
우리 인하대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과 특히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언제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나 뻘뻘해요!”

## 체력 요소 중 가장 빠른 시간에 향상되는 유연성

모든 체력요소 중에 가장 빠른 시간 내 향상 될 수 있는 부분이 유연성입니다. 매일매일 일정시간 꾸준히 하신다면, 적어도 6주정도 후에는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글 · 최석인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본원 건강증진센터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의 체력측정 중 유연성을 측정하다 보면 70%이상이 성별, 연령대비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 뻘뻘해요”라고 말씀하시더니 아 니나 다를까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준값 이하 입니다(측정 자세에서 손을 뻗었을 때 자신의 발까지도 손이 뻗어지지 않는 상태-). 그보다도 측정을 위한 자세로 앉는 것부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 보면 그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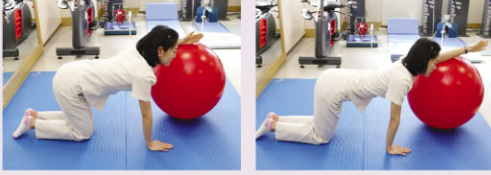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체력’ 생각하면 근력이나 심폐지구력을 떠올리게 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차로 이동하고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기계문명 속에 현대인들에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심각한 근피로와 부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의 동작을 반복함으로 인해 신체는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자세는 운동부족과 더해져 근육변형과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연성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연성은 무엇일까요? 유연성이란 관절동작의 최대 범위를 허용하는 모든 연부조직의 정상적인 신장능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쉽게 근육과 근육의 운동 가능한 범위를 증가시킴으로 근육통 혹은 부상의 가능성을 감소되어 안전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는 관절의 구조, 연령과 성, 결합조직(건, 인대, 근막뻘뻘, 관절, 피부), 근량, 활동 수준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활동량을 늘리고 결합조직의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해부생리학적 특성과 노화와 영향을 덜 받으면서 유연성을 늘리고 유지할

★ 다양한 방법의 스트레칭 동작



엑서사이즈 볼을 사용한 광배근 스트레칭



대퇴사두근과 고관절 굴곡 PNF스트레칭



폼롤러를 사용한 비복근/가자미근(중아리) 스트레칭



메디신 볼을 사용한 허리 골반 엉덩이 스트레칭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활동과 활동 중 가능한 관절 가동 범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드는 유연성은 운동을 통해 유지·향상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연성 트레이닝**을 통해 인체의 모든 운동면에 있어 적절한 동작범위를 가지게 되므로 근육불균형, 관절의 기능장애 및 상해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체력요소 중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향상 될 수 있는 부분이 유연성입니다. 매일매일 일정시간 꾸준히 하신다면, 적어도 6주 정도 후에는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가벼운 정적 스트레칭부터 원하는 스포츠종목에 맞는 동적스트레칭,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치료적 스트레칭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 자신의 유연성을 체크하고 운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적 스트레칭, 안전한 운동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트레이닝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의 : 비만센터(032-890-3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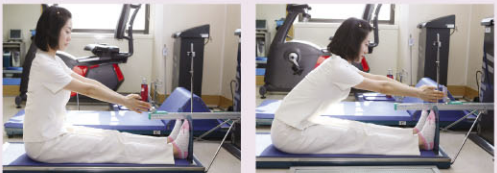
●유연성 측정방법

앉아 뒷몸 앞으로 굽히기는 배복부와 둔부의 복합적인 유연성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발바닥을 평평하게 고정시킨 후 천천히 움직여서 최대한 스트레칭 후 최소 3초정도는 그 자세로 정지해야 한다. 가동범위를 크게 하기 위한 반동은 절대 금지되며, 두 손은 동시에 뻗어 나와야 하고 어느 한 손이 앞으로 나오거나 무릎이 굽혀지면 실격 처리된다

팔을 앞으로 뻗어 닿는 위치를 발끝으로부터 측정하며, 손끝이 발 끝에 지나면 +값이고 못 미치면 -값으로 측정된다.

측정 시작 자세 & 마지막 자세



●바른 스트레칭을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

-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뱉는다.
- 처음에는 한 동작을 4~5회 반복하고, 15~30초 동안 유지한다.
- 익숙해지면 마지막 자세를 30~90초까지 늘려가며 유지한다.
- 동작 중에 절대 반동을 주지 않는다.
- 동작을 서서히 복귀시켜 근육이 자연스럽게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한다.
- 골절 부상 시에는 골절 후 8~12주 지난 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시작한다.
- 고정된 부분(갑상, 부목)의 과도한 스트레칭은 피한다.
- 자전거, 걷기와 같은 간단한 준비운동으로 근육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서 상해를 예방한다.
- 빈도와 시간, 강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ex : 준비체조, 스포츠경기 전·후, 부상 후 재활운동)
- 목표로 한 근육이 정확히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도 받고 실시한다.



변화진 소아청소년과\_ 변화진 원장

## 할머니 의사가 싫다고 하는 그 날까지.....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18년 동안 터주대감으로 자리 잡고 진료 서비스를 해 온 변화진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2월 초 남구 용현동에 다시 동지를 만들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있는 변 원장이지만 처음 개원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변 원장은 의사 같지 않은 의사의 이미지를 담으려고 한다. 의사가운도 잘 입지 않는 편이고, 캐릭터 모양의 청진기도 그렇고 모니터 앞에 잔뜩 붙어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딱지 모양의 스티커가 그렇다.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에 밴 변 원장의 마음이 느껴진다.

인하대병원이 가까이에 있어 변 원장은 한편으로 마음이 든든하다. 소아들은 워낙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 응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에 진료 의뢰 시 교통정리를 잘해주는 진료의료센터가 있어 편하고, 언제나 믿는 마음으로 환자를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변 원장은 전한다. 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아침을 시작한다는 변 원장, 인생에 있어서 원해서 된 것은 없지만 소아과를 선택한 것은 옳은 길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변 원장이 더 편한 마음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과 진료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내과 전문의이신 아버지가 동행을 하기 때문이다.

1992년 처음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개원을 한 변 원장, 아이들이 할머니 의사가 싫다고 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고 환한 웃음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한다. 봄날 따스한 햇살이 이보다 눈부실까. ●인천시 남구 용현2동 ☎ 032-561-5108



유원 정형외과\_ 오재진 원장

## 환자가 의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어야.....

가정동에서 9년간 가정정형외과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진료서비스를 하던 오재진 원장은 지난 2월 2일 남구 용현동으로 옮겨 유원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진료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식구처럼, 환자를 대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안가는 부분이 없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 이야기만 다 들어드려도 낯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원장은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줄 때 치료효과에 확신을 갖는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한 것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먼 훗날 자신의 이야기가 옳음을 아는 그 날을 위해 오 원장은 진실된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확고히 말한다.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오 원장은 일단 몸을 움직여서 병을 낫게 해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경우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다.

특히 정형외과에서는 운동과 자세가 중요한데 주사 한 방의 효과를 기대하며 생활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한다. 급성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의료적인 도움과 만성인 경우가 다른데 이런 이해를 충분히 환자에게 어필한다는 것이 오 원장의 진료 기본이다.

당신만을 위한다는 의미의 유원 정형외과는 내 집에 들어온 느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가족같이 환자를 맞이한다는 단단한 각오로 무장한다.

●인천시 남구 용현2동 ☎ 032-567-8600

글·이정희 | 자유기고가

혈압약에 대한 궁금한 것들

# 피해야 할 음식과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다!



**Q: 혈압약은 왜 아침에 먹나요?**

**A:** 혈압은 자는 동안엔 낮고 이른 아침 급격히 상승해 기상할 때쯤 가장 높아지므로 혈압약을 1일 1회 복용할 경우 보통은 아침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이노제는 저녁 늦게 복용하면 이노작용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약을 반드시 아침에만 복용하지는 않습니다. 카듀라, 카달정(Doxazosin), 하이트린정(Terazosin) 등의 혈압약(알파-1차단제)은 초기 복용 시에 '체위성 저혈압' (일어섰을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에는 잠들기 전에 최소량으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방 지시에 잘 따라야합니다.

**Q: 고혈압약 먹을 때 주의해야할 음식이 있나요?**

**A:** 고혈압약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테놀민정(atenolol), 프라놀정(propranolol)등의 혈압약(베타차단제) 복용시 특히 주의할 음식은 '고기'입니다. 이러한 혈압약을 고기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가 증가돼 어지러움증이나 저혈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알닥톤정(Spironolactone) 등 '칼륨보충 이노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푸른잎 채소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칼륨보충 이노제는 신장에서 칼륨이 배설되는 것을 억제해 고칼륨혈증(체내 칼륨 증가)을 유발할 수 있는데, 체내에 칼륨이 많아지면 불규칙한 맥박, 심계항진, 근육통이나 마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이클로짓정(thiazide계) 및 라식스정(loop 이노제)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 성분이 체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손실을 유발하므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도록 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약을 알로에와 같이 먹으면 체내 칼륨량이 지나치게 감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나요?**

**A:** 고혈압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 완치가 어렵습니다. 드물게 약 복용을 중단한 뒤에도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것은 식이요법, 운동 등으로 효과를 거둔 것이지 일시적인 약 복용으로 고혈압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고혈압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정석기업 김중선 부회장 병원 발전기금 기탁**

지난 12월 2일 정석기업 김중선 부회장은 아버지고 김형배 부회장(췌한진) 생전에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수년간 진료를 받는 동안 늘 한결 같이 최선을 다하며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보여준 의료진과 본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본원에 5천만 원을 재활의학과 발전기금으로 기탁하였다. 재활의학과에서는 기탁받은 기금으로 재활 치료 장비인 <상지



로봇재활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동 중에 있다. 이 장비는 로봇 팔에 부착된 여러 개의 센서를 통하여 환자 팔의 세부 동작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나, 환자는 이를 통하여 3차원 가상현실 속의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동작을 흥미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척수손상,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파킨슨병 등에 적용 가능하다.

**제1기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 병원발전기금 전달**



▲ 동부약품 이희구



▲ 리츠팰리스 양정모



▲ 대일양행 류찬희



▲ 으뜸퍼니처 임종상

1월 30일 제1기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6,500만 원의 병원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회장 이희구)에서 3,000만 원을 기부해 주었으며, 리츠팰리스 양정모 대표 2,000만 원, 대일양행 류찬희 사장 1,000만 원, 으뜸퍼니처 임종상 대표가 500만 원을 병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 국내 대학병원 첫 해외 국제진료 센터 개설

인하대병원이 국내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해외에 국제 진료센터를 개설했다. 인하대병원은 3월 20일 중국 칭다오 청양구 런민(人民)병원에서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진료 업무를 시작했다. 런민병원 내 설치한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중국 런민병원이 지난 2007년 5월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파트너를 의뢰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병원에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인하대병원과 런민병원은 지난 2008년 3월 인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0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제진료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칭다오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런민병원은 신경내과, 소아과, 심혈관내과 등 28개 임상과와 70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현재 250여 명의 의사와 200여 명의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날 개소한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소화기내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등 3개 진료과로 이뤄져 있다. 진료는 중국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인하대병원 전문 교수진 24명이 교대로 진료일인 금요일 오후 및 토요일 오전 현지에서 외래진료를 하게 되며, 런민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울 경우 인천시 신흥동 인하대병원 본원으로 후송도 하게 된다. 인하대병원은 향후 국제진료센터에 진료과를 늘리고 상근 전문 교수진도 둘 계획이다.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는 한국 선진 의료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개설'로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 환자 유치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국가적인 의료 관광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승림 병원장은 표창 수상과 함께 '인하대병원 해외환자 유치사례' 발표를 통해 "지구촌 한가족 캠페인, 외국인 종합건강검진, 2011년 개원을 앞둔 영종메디컬센터, 중국 청도시 성양구 인민병원 국제 클리닉 개소, 인천국제공항 국제진료센터 등 인하대병원이 동북아 메디포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환자 유치사례와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 교육 삼락회(인천시 퇴직교장단체) 지정병원협약체결 ●**

1월 22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에서 (사)인천시 교육 삼락회(회장 전길순)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을 하였다.

삼락회(인천시 퇴직 교장 단체)와 지정병원 협약 체결로 약 350여 명 퇴직 교장과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식 후에 비뇨기과 성도환 교수의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제1기 건강문화 CEO 과정 수료 ●●**

1월 30일 병원 3층 대강당에서 CEO를 위한 전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건강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제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경과 및 학사보고, 수료증 및 상패수여, 축사, 기념 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 학기 동안 동문수학한 41명의 CEO와 가족, 인하대병원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지난해 9월부터 과정을 함께 한 CEO들은 주 1회 건강관련 강의 수강을 비롯해 수시 혈압 및 혈당체크, 부부 종합건강검진, 인하대병원 교수들과 일대일 주치의결연 등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아왔으며, 이후에도 인하대 동문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인하대병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지정병원 협약 체결 ●●●**

2월 11일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회장 이선우)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인하대병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 지정병원 협약 체결로 약 170여명 회원과 그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인천지역사회를 위해 협력하여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인하대병원 박승림 병원장은 "의료지원 협약을 계기로 회원 여러분의 건강상담에서부터 질환치료, 의료자문 등의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어린이재단과 빈곤아동 후원 협약 체결 ●●●●**

2월 20일 인하대병원은 어린이재단과 빈곤아동 지원 관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협약에 의해 오는 4월부터 병원에서 해외빈곤아동 사진 전시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빈곤아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어린이재단 이제훈 대표이사는 "지난 해 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은 어린이재단과





함께 스리랑카 의료봉사를 펼치면서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협조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CI 인증을 위한 교육 실시 ●**

본원 적정진료관리실 주관으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JCI 컨설턴트 Dr. Paul Chang, Heidi Do(김현옥)를 강사로 초청하여 JCI 인증 TFT 팀원 & 실무 팀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JCI 소개 및 인증절차, 기준의 이해,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각 평가항목별 기준에 대한 상세설명으로 이루어진 강의는 JCI 인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나침반 역할을 해준 시간이었다.



**인천광역시약사회, 지정병원 협약 체결 ●●**

2월 24일 인하대병원 3층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김사연)와 지정 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약사회와 지정병원 협약 체결로 약 1,100여 명 회원과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기로 했으며 앞으로 인천지역 사회를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인하대병원 · 인천경제청 · 美 유타대 공동연구소 유치 협약 ●●●**

인하대병원과 유타약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연구소 '재단법인 유타-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외국 대학 · 연구소 유치 지원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향후 DDS 연구소는 바이오센서, 진단 및 치료의료 기기 등 다른 분야로도 그 연구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약물 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 DDS)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제를 사용해 고분자 또는 BT, IT, NT 융합기술을 활용한 약물전달 장치의 이용을 통해 약물의 방출을 조절하거나 원하는 치료부위에 집중하여 그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로서, 이 기술의 개발은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감소시키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 많은 제약회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박승림 병원장,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부회장 연임 ●●●●**

본원 박승림 병원장이 3월 6일 전국 35개 주요병원 대한민국 국제의료서비스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임원 선출에서 부회장으로 연임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국제의료서비스 관련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본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 개원 8주년 기념식 ●

3월 10일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가 개원 8주년이 되었다. 기념식에는 이두익 의료원장, 박승림 병원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외부인사로 임관식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이진걸 대한항공 인천여객서비스 지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공항의료센터는 불 꺼지지 않는 Air City 인천국제공항에 의료서비스를 지난 8년간 제공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영종 지역 유일한 24시간 진료 가능한 의료 시설이다.



### 인천광역시치과의사협회 지정병원 협약 ●●

3월 11일 본원과 인천광역시치과의사협회는 지정병원협약 체결을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승림 병원장은 “치과 의료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동안 정작 본인과 가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원과 가족의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 인하대병원 제 6회 Q.I 학술대회 개최 ●●●

3월 12일 인하대병원 제 6회 Q.I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구연발표 10개 팀, 포스터 발표 7개 팀이 참여하여, 외래간호팀의 <외래 진료안내원의 맞춤형 고객응대를 위한 표준응대 Q&A 개발 및 적용효과>가 구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우수상에는 물류팀 중앙공급실과 내과계중환자실B팀이 선정, 포스터부문은 집중치료실(1) <투약 실수에 대한 분석, 조사 및 예방 전략 활동>이, QI Feedback 우수상은 영양팀 <직원식 전반량 줄이기>와 감염관리실/ID <감염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카테터 관련 병원감염률 감소활동>에게 돌아갔다.



### 2009년도 상반기 교직원 서비스 향상 교육 실시 ●●●●

본원 인사교육팀에서는 2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26차에 걸쳐 일반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CS 마인드, 이미지, 고객응대의 내용으로 사내 서비스 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본원은 지난 11월부터 병원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분야별 사내 전문강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1. 자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 2. 봉사활동시간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 ③ 행사 참여 : आय회, 송년회, 간담회
- ④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⑤ 의료비 감면 (6개월 이상 봉사자)
-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선 자격 부여

### 작은 사랑의 실천 함께 나눠요~~

현재 인하대병원에서 호스피스봉사를 하고 계신 박애순, 주선옥, 오정순 봉사자님께서 매월 나눔지기기금에 후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소 호스피스봉사를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대할 때 마음이 아프셨다며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따뜻한 봄햇살에 실어 보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홈페이지 [www.inha.com](http://www.inha.com)>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http://cafe.daum.net/inhabluebird)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파랑새 행사 공지

#### ♣유방암 공개강좌 및 노래교실

2009년 3월 13일 70여명의 파랑새회원 및 가족들이 모여 유방암과 우울증에 대해 정신과 배자남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으며 2009년 새로 선출된 회장 및 임원들의 소개와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유방암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불면, 불안 등을 중앙스트레스 클리닉 진료로 도움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지지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유익한 강연였다.

#### ♣행사에정



#### 1. 벚꽃 축제 여행

- \* 일시 : 2009년 4월 9일(목)
- \* 장소 : 강릉 경포대
- \* 파랑새 회원 및 모든 관심 있는 유방암 환우 참석가능

#### 2. 체육대회

- \* 인천대공원 (5월 중, 날짜 미정 추후공지)

# 인사동정

## 정년퇴임

심장내과 이우형

## 보직임명

소속	성명	발령사항
정신과	김철웅	임상의학연구소장
신경외과	박현선	임상연구센터장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사이버나이프센터 소장
외과	김세중	외과과장 직무대리
감염내과	정문현	감염내과분과장 직무대리
정형외과	김명구	골,조직은행장 겸 의료관리자
인사교육팀	김용선	전산정보팀장
물류팀	황우경	총무팀장
고객만족팀	이도익	대외협력홍보실 부 산업의학과 관리담당 겸직
기획조정팀	안중식	CS팀장
간호부	박해옥	인사교육팀장
병동간호팀	조의영	간호부장
외래간호팀	김옥주	적정진료관리실 RISKMANAGER
진료지원팀	이수연	외래간호팀장
병동간호팀	최화숙	병동간호1팀장
병동간호팀	임혜빈	병동간호2팀장
특수간호팀	최윤정	간호부 간호행정 간호단위책임자
기획홍보팀	최영애	병동간호1팀 동12병동 간호단위책임자
특수간호팀	장수희	병동간호2팀 동9병동 간호단위책임자
병동간호팀	조영신	병동간호1팀 서17병동 간호단위책임자
병동간호팀	홍선주	병동간호2팀 서9병동 간호단위책임자 직무대리
인천공향의료센터	김신애	병동간호2팀 서8병동 간호단위책임자
특수간호팀	박정아	CCU 간호단위책임자 직무대리
외래간호팀	오승은	병동간호2팀 신생아실 간호단위책임자
특수간호팀	곽경선	SICU-B 간호단위책임자 직무대리
영종메디컬센터 개원추진본부	이강보	행정관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

## 임상교원 신규임용

이비인후과	조교수	임재열
내분비내과	전임강사	김소현
응급의학과	전임강사	김지혜
순화기내과	촉탁전문의	이우형
영상의학과	촉탁전문의(비상근)	편해옥

## 임상교원 승진임용

외과	교수	허윤석
소아청소년과	교수	전용훈
산부인과	교수	송은섭
비뇨기과	교수	이택
임상의학연구소	교수	송순옥
정형외과	부교수	이동주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권영세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이지은
신경과	부교수	윤창호
영상의학과	부교수	박선원
영상의학과	부교수	전용선
진단검사의학과	부교수	문연숙
병리과	부교수	박인서
신경과	조교수	송은철

## 임용

소화기내과	전임의	김철현, 박병도, 방병욱
심장내과	전임의	최웅길
내분비내과	전임의	이정진
신장내과	전임의	권수현
감염내과	전임의	김미정
류마티스내과	전임의	최정란
정형외과	전임의	배주한
성형외과	전임의	유선혜
정신과	전임의	이명지
신경과	전임의	지기환
피부과	전임의	이승규, 이현숙
마취통증의학과	전임의	이재학
산업의학과	전임의	이의철, 김환철
응급의학과	전임의	강진아
산부인과	전임의	성승미
호흡기내과	임상강사	남해성
혈액종양내과	임상강사	임주한
류마티스내과	임상강사	임미진
영상의학과	임상강사	김여주
응급의학과	임상강사	김훈
소화기내과	일반의	김윤형, 정현정

## 신규채용

병동간호팀	배시은, 정수련, 김미숙, 노인숙, 김영은, 한송이, 임찬수
외래간호팀	권세미
약제팀	이하나, 민현숙, 김선희, 최이진, 강지영, 오수경

## 파견

소속	성명	발령사항
행정관리실	이강보	영종메디컬센터 개원추진본부 겸직
인사교육팀	박해옥	영종메디컬센터 개원추진본부 겸직
약제팀	장미란	임상시험센터

## 전근

소속	성명	발령사항
행정관리실	김종래	영종메디컬센터 개원추진본부
총무팀	김명환	행정관리실
대외협력홍보실	김영진	행정관리실
영상의학과	최홍식	행정관리실
영종메디컬센터 개원추진본부	김연희	간호부
고객만족팀	김진영	간호부
병동간호팀	전창숙	간호부
병동간호팀	최경옥	간호부
특수간호팀	권은경	간호부
대외협력홍보실	심학수	원무보험팀
특수간호팀	조영아	적정진료관리실 Q팀
병동간호팀	윤희장	대외협력홍보실
원무보험팀	전희경	전산정보팀
간호부	신정애	적정진료관리실 Q팀부
특수간호팀	이소임	병동간호팀
특수간호팀	안지현	병동간호팀
임상시험센터	정우현	진단검사의학과

## 이달의 친절직원

2월	특수간호팀(7병동)	채명희
3월	병동간호팀(동17병동)	홍미란



# Global Inha

이번 달에는 지난 호 '채혈실'에 이어 영상의학과와 'X-ray 촬영실'에서의 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aff:** Hello! This is Radiology registration office. Would you give me your appointment slip?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접수입니다. 접수증을 주시겠어요?

**Intl' patient:**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Staff:** Your registration is done. Please go and sit in front of chair and your name will be called to go in.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 쪽의 의자에 가서 앉아계시면, 순서에 맞춰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Medical technologist:** Mr./Ms. ——? Please come in. Before the X-ray, please remove the metallic object, like a necklace, from your body. And please take off your top coat and change into exam gown. ——환자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X-ray 찍으시기 전에 목걸이 같은 금속류는 빼주시고 상의는 벗으셔서 가운데로 갈아입으세요.

**Intl' patient:** Do I need to take off my bracelet? 팔찌도 빼야하나요?

**Medical technologist:** No, you don't need to take off it, because you only take a chest X-ray.

아니요, 안 빼셔도 됩니다. 오늘 흉부 X-ray만 찍으시거든요.

**Medical technologist:** Take a deep breath in/out and hold it. Please do not move even if it is a little comfortable.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추세요. 불편해도 움직이지 마세요.

(After taking X-ray)

**Medical technologist:** Please breathe now. Well, it's all over. I hope you will be well. Good-bye.

숨쉬시고, 촬영이 끝났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Intl' patient:** Thank you, good-bye. 고마워요.



## 원 | 고 | 모 | 집

원보 인하대병원에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잔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E-mail : inhapr@inha.com

■보낼 곳 : 대외협력홍보실

☎ 032-890-2603

##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김필립 | 대외협력홍보실

유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부협팀

## 독 자 업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_\_\_\_\_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 07. 09 ~ 2010.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는 사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 퀴즈 퀴즈 제48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1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알레르기성 비염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과 이른바 3대 알레르기 질환으로 불린다.
  - ② 같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항원에 대하여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 ③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의 네 가지 주요 증상이 특징이다.
  - ④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는 완치가 목표이다.
- 2 본원의 뇌졸중 환자를 위한 뇌졸중 치료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인천지역에서 유일한 <뇌졸중 치료실>이다.
  - ②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다양한 의료전문인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뇌졸중 치료실>은 만성기 뇌졸중 환자의 집중치료를 하기 위한 곳이다.
  - ④ <뇌졸중 치료실>에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한다.
- 3 지난 1월 국내대학병원 중 최초로 000000이라는 최신의 유방암 진단기기를 도입하였다. 이 장비는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유방암을 찾아내는 진단장비로 기존의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장비이다. 특히 한국여성에서 많이 발견되는 치밀유방(유방조직이 치밀하게 분포하여 있는 유방)에 적용하기 알맞으며, 촬영 시 불편감을 없앤 우수한 장비이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Quiz 정답

1

2

3 (ㄱ)

(ㄴ)

### ♣ 제47회 QUIZ 정답

① 3

② 4

③ ㄱ) 폐암, ㄴ) 류정선

### ♣ 당첨을 축하합니다

- 김장식 인천시 남구 송의 4동
- 김혜린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 이영희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 박정희 7병동
- 강혜원 간호부



## 인하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 총괄 현황 | 2009년 3월 13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49명	577,039,950원	439,955,598원	

### ◎ 기부자 현황 | 2009년 1월 1일 ~ 3월 13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09. 01.05	시설관리팀	₩500,000	시설관리팀(완납)
09. 01.06	김 진	₩500,000	코코이비인후과 원장(완납)
09. 02.05	건강CEO 원우회	₩30,000,000	제1기 건강CEO원우회(완납)
09. 02.06	양정모	₩20,000,000	리츠밸리스 대표(완납)
09. 02.10	류찬희	₩10,000,000	대일양행 대표(완납)
09. 02.10	임종상	₩5,000,000	으뜸퍼니처 대표(완납)
09. 02.10	인사회	₩500,000	인하대소아과의국 동문회(완납)

## |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li> <li>- 참가비 7만원</li> </ul>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li> <li>•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li> <li>•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li> </ul>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방암 환자의 식이</li> <li>•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파부종 관리</li> <li>•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li> <li>-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li> </ul>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3시 ~ 5시 4월 13일 월요일 5월 12일 화요일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 무료공개 강좌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3월 24일(화) 오후 3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과 치료 최신지견	류마티스 내과	박 원
5월 26일(화) 오후 3시	혈관 질환의 최신치료	외과	김장용
6월 30일(화) 오후 3시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과	김정희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 |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주최
2009. 3. 2(월) ~ 2009. 3. 31(화)	고진오 화백 전시회		인천남구미술인협회
2009. 4. 4(금) ~ 2009. 5. 2(토)	김상화 화백 전시회		
2009. 5. 3(금) ~ 2009. 6. 10(수)	어린이 그림전시회		김정희 작가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행기형, 미용	화, 목	화		이비인후과 (☎2420)	장대영	*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유선혜		손외과 및 미세수술 화상, 미용	월, 수, 금	수			김영모	*	두경부중양(목), 음성언어(편도X)	화, 목	월	△아지리응중클리닉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수), 금	화, (수)	다행병원(가톨릭) 359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갑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월, 화, 목	수 (목),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	정신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콜중독, 노인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조율병클리닉	
	신정현	*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색소질환, 두드러기, 피부미용, 레이저	수, 금	월, 화, (금),	□미용외과클리닉		김철웅	*	난치성 정신분열, 외상성장애, 발현중, 조경신병	월, 목	수, 목	조기정신병클리닉	
	이현숙		건선, 여드름, 바젯병, 피부미용외과	(수), 목	(수), 목, 금	#홍터클리닉		이정섭	*	소아정신장애(신약·학술·주요·연어·아노장애)	월	화, 목, 금	황태클리닉(청년339)	
	이승규		모발, 모발이식, 피부미용외과	(화), 금	화, 금	▲레이저클리닉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목	월, 수	노년치매클리닉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화, 금	화		신경과 (☎3860) 만5세이상 진료가능	이명지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수	월, (화), 금	□여성상담센터	
	박원희	*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월, 수	수			하충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윤상민		종양, 결석, 신이식	월, 목	목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화, 금	뇌졸중클리닉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수, 금	화, 수	지역, 언어장애클리닉	
	이택	*	소아배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윤찬호		해위연수(2008. 8 ~ )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수	월, 수			송은철		말초신경질환, 자율신경질환, 두통, 뇌졸중	월, 목	월, 금		
산부인과 (☎2270)	이우영	*	부인과중양	화, 목, (금),	(수), 금	□여성상담센터	재활의학과 (☎2480)	지기환		간질 및 하지불안증후군	금	월, 수	수면클리닉	
	이병익	*	종양학, 불임·폐경기	수, 금	월, 목	△비만센터		정한영	*	뇌졸중중증, 소뇌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뇌성마비클리닉	
	임문환		주인(의학, 태아성장소독, 유전학, 알코올산부인과학)	화, 목	월, 화			김창환	*	근골격계중증외상, 요실금, 말초신경병변	화, 수	목	*언어장애	
	송은섭	*	부인과중양	월, (화), (수)	화			김영옥	*	척추수상, 언어장애, 발동중, 의지보조기	목	월, 화, 금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목), 금	화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박지현	*	주산기의학, 산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진전센터피견
	성승미		산과, 내시경	화, 목	금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금	(화), 목 (금),	△비만센터	
여성암센터 ☎2560	이우영	*	부인과중양	금	수		국제클리닉(☎2455)	일 반	신체검새우학, 비자용) 영문진단서	월, 수, 목	월, 수, 목	월, 화, 수, 목, 금		
	송은섭	*	부인과중양	화, 수	수		동증치료실 (☎3921)	이두익		통증치료	화	화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목	화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수, 목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수, 목	화		영상의학과 (☎2740)	김원홍		HI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영상의학과 정신과	김윤정		유방방사선학		(월), (수),	■암모토름 기술	방사선종양학과 (☎3070)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목		
	이명지		불안장애		(화)	□중앙스트레스클리닉		전용선		해위연수(2009. 3 ~ )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화, 금	월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화, 목, (금+)	월, (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소아청소년과 (☎2260)	손병관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만5세까지 소아진료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 종양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핵의학과(☎3160) 산업의학과 (☎2861)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화, 목, (금+)	월, (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홍영진	*	심장, 감염	목, 금	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월), 수, 목, 금	최정현(한대) 4299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수), 목	□비만센터		일 반	일반	금	월, 화, 목			
	전용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금	화, 수	△소아내시경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금	화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월, 목	▲변비, 간질환클리닉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화	월, 목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수	화, 금			박현선	*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권영세		신경, 간질, 두통	화, 수	월, 금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수, 금	수, 금		
	이지은	*	신장, 내분비, 유전	화, 목	수, (목), 금			현인영		동위원소치료	월, 수, 금	월, 수, 금		
	강성길		소화기, 소아내시경	월, (화), 수, 목, 금	(목), 화, 금			임종한		환경생활,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령계	월, 목	화,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수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금	월, 금		
안과 (☎2400)	오중협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화	황금광우안외과클리닉	치과 (☎2470)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임플란트클리닉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수, 목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화, 금		
	진희승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금	월			장금수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강성모		안성형, 사시	월, 수	금			이연화		교정과	월, 수, 금	화, 수, 금		
일 반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송경화		보존과	화, 수, 목	월, 화, 목				
안과레이저(☎2400)	EYAL		레이저 클리닉		월, 화, 수, 목, 금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응급의학, 약물중독		수			

# Cyberknife



##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 무혈 '로봇 사이버나이프'

###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란?

유럽,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실시간 종양 추적 초정밀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 >> 치료 가능한 질환

#### | 뇌종양 |

악성뇌종양 : 전이성 뇌종양, 다발성 뇌종양  
양성뇌종양 : 청신경초종,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뇌하수체종

#### | 체부종양 |

전립선암, 폐암, 간암, 췌장암, 소화기암, 유방암, 부인과암(자궁암, 난소암), 비뇨기계암 등 척추종양, 전이성 척추암, 원발성 척추암, 수막종, 척추신경초종

#### | 두경부종양 |

갑상선암, 안와종양, 상악동암, 비 인강암, 뇌기저부 종양

#### | 뇌신경, 혈관질환 |

뇌동맥맥기형, 해면혈관종, 삼차신경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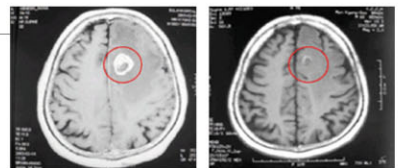
#### | 정신과질환 |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이외에 재발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다발성 종양, 기존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종양 등 다양

#### 뇌종양

뇌실질 정상 조직은 피하면서 종양에만 정밀 방사선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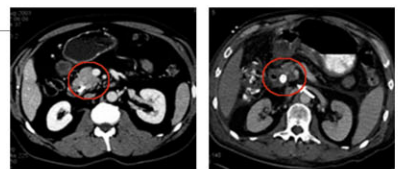


▲ 치료전

▲ 치료후

#### 췌장암

췌장은 주변에 피해야할 중요한 기관들이 많으므로 로봇 수술이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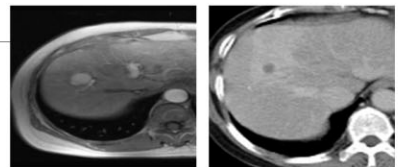


▲ 치료전

▲ 치료후

#### 간암

간기능 보존 치료



▲ 치료전

▲ 치료후